

교장 취임식

3월 2일 제8대 김두용 교장 선생님이 취임하였습니다.

전임 제7대 교수영 교장 선생님이 이어 우리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신 김두용 교장 선생님은 ‘꿈과 사랑을 심어주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찬 학교’라는 경영관으로 우리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꿈과 사랑을 키워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해외교육 체험 연수를 다녀와서.....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교육 체험연수를 통한 학생중심 행복학교 만들기)

비록 5박 7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외교육 체험 연수를 통해 학교장의 리더십 역량에 따라 학교가 놀랍게 달라질 수 있고, 학교변화의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 역시 학교장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생중심 교육 실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가 방문했던 학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의 NMS Hanreitergasse, (초, 중학교), 스위스의 Schulhaus Seehalde(중학교)였다. 두 학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사람중심 사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 가르쳐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선진국가로 잘 살아가는 데는 경제여건의 충족만이 아니라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이 그들의 사회를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깨끗한 도시와 질서 있는 생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킬 줄 아는 미적 감수성 등을 길러주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서였다.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준법정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습관화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었다. 교육 방법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타인의 배려와 존중이 곧 나의 존중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친절하고 겸손하며 남을 배려한다.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마주하면 보행자가 우선이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야말로 우리 사회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아닌가 한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특기적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우리가 만났던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학생과 학부모, 교민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한국에 비해 매우 자유로워 보이는 수업시간에도 그들은 즐거웠으며, 체육시간과 가사실습 시간에도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삶의 목표, 출발선, 그리고 과정도 각기 다른 사람들, 이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동일한 선상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오늘의 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존감의 형성이 중요할 뿐이었다. 교육 프로그램 하나 하나가 그렇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에게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교육이 진정한 것으로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하기에 충분한 체험이었다.

“우리는 한국처럼 대학입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개개인의 특기·적성에 따라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고 가르치죠.”

스위스 ‘Schulhaus Seehalde’에서 Gregory Turkawka 교장선생님의 말씀이다.

아이들이 걷기까지 개인별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듯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해 주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5박 7일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해외교육 체험연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이제 우리도 미래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융합적 사고와 함께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간다면 세계 속의 교육강국, 경제강국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그래서 5박 7일간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해외교육 체험연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Contents

2 + 학교소식

- 처음이라 긴장되지만 함께 걸어가요 ~
- 장학금 수여식
- 우리 이렇게 공부해요 ~
- 안전교육
- 세월호 추모행사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 나도 과학자 ~ 조마조마 과학실험^^
- 봉사의 즐거움
- 금연교육
- 독후감 발표대회
- 이동과학교실 운영

4 + 체험속으로

- 내고장 체험활동
-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체험
- 조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
-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

5 + 진로교육

- 나만의 손목시계
- ‘꿈트리 진로캠프’
- 아름다운 머리띠를 만들어 보아요^^
- 지진이나 공습에는 이렇게.....
- 프리히그 행사

6 + 동아리활동 및 학교사업

- 우리학교 동아리 가온누리 활동 ~^^
- 너나들이 활동
- 다꿈키움학교

7 + 학교사업

- 두드림 학교 사업
- 학부모 제과 · 제빵 교육
- 농어촌연계학교-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 감사합니다. 변추협 간식 제공

8 + 우리들의 숨씨

- 독후감
- 숨씨처럼
- 여름방학 학교 일정
- 방학 중 안전지도



입학식

처음이라 긴장되지만 함께 걸어가요~

2016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학교에도 신입생이 들어와 이들을 환영하고 새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3월 2일 우리학교 드림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신입생들은 변산초등학교와 격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학교에 진학한 33명의 지역 학생들로 남학생 21명, 여학생 12명이 두 반으로 나뉘어 생활하게 됩니다.

김두용 교장 선생님은 신입생들에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습에도 힘쓰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뒤를 잇는 변산 서중학교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대표로 1학년 1반에 배정된 정현진 학생이 입학선서를 하였습니다.



안전교육

2016년 3월 21일 오후 세 시에 우리학교에서는 운동장 및 각 반 교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화재 시 대피상황 및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를 진압하는 교육을 통하여,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제1회 동창회 장학금 수여



제3회 동창회 장학금 수여



제3회 동창회 장학금 수여



홀마트 재효 장학금 수여

입학식이 있었던 3월 2일, 우리학교 출신의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제1회 동창회 장학금은 정현진(1학년), 강수정(2학년), 손지영(3학년) 등의 세 명의 학생들이 받았으며, 제3회 동창회 장학금은 곽태식(1학년), 유빈(2학년), 김주희(3학년) 등의 세 학생들이, 홀마트 재효 장학금은 1학년 이한결 외 9명의 학생들이 각각 받았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에 대해 3학년 김주희 학생은, “매년 우리학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시는 선배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이 되어 자랑스러운 변산서중인이 되어야 할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며, 선배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업공개

우리 이렇게 공부해요~
정든 저장, 선생님 멋지다



우리학교에서는 4월 22일 오전에 학부모 공개수업이 있었으며, 여러 학부모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부모회장 이명화 학부모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의 학구열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 참 좋은 시간이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교육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더욱 우리 학교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추모행사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있었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 특히 이 사고로 제주도도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 중 246명의 학생들이 희생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학생들은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기억하기 위해 작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추모의 행사를 학생회 중심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 15일에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윤지후)을 중심으로 세월호 추모 배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홍보문구와 포스터 등을 직접 만들어 ‘세월호’ 참사를 여러 학생들이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회장 윤지후 학생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가장 최선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해·인·식·개·선·캠페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아침에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였으며, 장애 인식 개선의 내용을 담은 ‘만화그리기, 오행시 짓기’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작품을 완성한 학생들을 선정하여 그들에게는 자폐인이 디자인한 학용품을 증정하였습니다.



나도 과학자~ 조마조마 과학실험~

2016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4월 15일과 18일 우리학교 전교생이 학년별로 과학실험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교과내용과 관련이 있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풍력발전의 원리를 아는 신재생에너지 실험에 직접 참여하면서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학년 김구를 학생은 "실험을 통해 글로만 배웠던 과학의 원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과학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금연은 내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얼마 전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공간에서 금연이 당연시되어 오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학교에서도 매년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학교 내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흡연하지 않는 동의 성과가 있어왔습니다.

올해 4월 18일에도 우리학교에서는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교생과 김두용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까지 모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연 캠페인을 통해 김두용 교장 선생님은 "이번 금연 캠페인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금연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느새 금연은 자선의 건강에서, 크게는 우리 사회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우리 사회에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학교에서는 꾸준히 금연캠페인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잘 알고 해야죠~



4월 20일 전학년 대상으로 정해진 선생님 외 4명의 선생님들(이상 전북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이 실시하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우리학생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자원봉사의 의미, 자원봉사 활동계획 수립, 1365 홈페이지 이용법 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후감 발표대회

우리학교 독후감 발표대회가 5월 16일 소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총 6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경훈(3학년 1반)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에는 김소영(3학년 1반), 조이랑(1학년 2반), 장려상에는 오소현(3학년 1반), 이한결(1학년 1반), 김규빈(1학년 2반) 등의 학생들이 수상하였습니다.



이동과학교실 운영... 학생들 과학의 꿈 '쑥쑥'

지난 4월 28일 우리학교 주차장에서 한양대학교 '이동과학교실'이 있었으며, 우리학교 학생들과 부산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까지 모두 1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동과학교실'은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센터장 최정훈 교수, 황복기 교수)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살아있는 과학실습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약 2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6월부터 트레이너를 직접 디자인, 개조해 실험장비와 최첨단 영상장치 등을 탑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STEAM 공학기술강연극(Science in Opera) 및 실험체험 실습을 하였는데 공학기술강연극으로 '오페라의 유령'을 공연하였는데 그 극 구성구석에 과학의 원리를 담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그 원리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실험체험실습은 학생들이 학년별로 첨단공학기술에 응용되는 현미경 만들기 체험과 친환경 자기발전 손전등 만들기, RGB(빛의 삼원색)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모형 만들기 등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동과학교실 융합과학을 체험한 박준우(3년) 학생은 "오페라의 유령은 소리에 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만족해하였습니다.

한편 최진아 과학 선생님은 "편안에는 도시에 비해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 '이동과학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및 연구체험을 하면서 과학의 원리를 연구관람으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한양대 최정훈 교수님

2016 부산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육상대회 결과

- 일시: 2016년 5월 13일(금)
- 장소: 부산스포츠파크 운동장

종목	남자	학년	등위	기록
100M	이정서	1	3	14 " 08
	박유빈	2	2	15 " 50
200M	김지원	3	3	12 " 93
	곽대영	1	2	1 ' 15 " 88
800M	김지원	3	2	2 ' 38 "
	곽대영	1	1	7m 57cm
포환던지기	심보람	1	1	6m 88cm
	김혜인	3	2	6m 22cm



내 고장 체험활동

위급한 상황에서는 나도 할 수 있다!

내고장 숲체험 안전산행교실의 응급처치 안전교육이 5월 4일(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진아 선생님의 인솔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변산 분소에서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산행안전교실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CPR(심폐소생술)을 비롯한 다양한 응급처치교육이 있어 우리학생들이 산행 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고장 농촌사랑 체험활동

2016년 4월 13일 부안군 보안면 흉농장으로 3학년 윤지후 외 9명의 학생들이 내고장 농촌사랑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유기농 과수원 흉농장에 도착하여 안전관련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비거림과 하우스에서 배꽃 구경을 하고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 만들기과 면봉으로 꽃에 꽃가루 묻히기 등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내고장 체험학습은 우리학교 노력중점사업의 하나로 매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을 배경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고장의 아름다움을 함께 ^^

지난 7월 1일(금),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사포, 적벽강 일대에서 내고장 체험학습 중 지질학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사포 해안사구 생태계의 기능을 알아보고 사구식물을 관찰하였으며, 모래사장에서는 조개껍질도 줍고, 해파리도 관찰하였습니다. 적벽강 일대로 이동하여 폐파라이트라는 적벽강에서 관찰되는 희귀 암석을 관찰하였고, 지층의 선후관계 파악, 퇴적암 구별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과 파식대지, 파식에, 주상절리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던 최진이 선생님은 “기꺼운 내 고장에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지질 구조, 식물, 해양 생물들이 가득합니다.”라고 하였으며, 다음 내고장 체험학습은 격포리 채석강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사포 해안에서

적벽강에서 희귀 암석을 발견!

넌 누구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체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관련정보와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7월 6일(수) 오후에 우리학교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부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군보건소 등 총 11개소에서 우리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을 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 부스에서 CPR(심폐소생술)을 체험하였던 김주희(학생회 부회장) 학생은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 다행이다.”라고 하며, 이번 체험활동의 중요성과 보람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8개소 이상을 방문하여 체험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두 시간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들은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체험활동이었다고 즐거워하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학교에서는 매년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K-water 물드림캠프를 진행하여 물의 소중함과 그 바른 이용 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4월 21일(목) 부안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물드림캠프에는 물이론 교육, 자유학기 관련 직업 소개, 부안댐의 역할, 정수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조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3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학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이 5월 10일 ~12일까지 2박 3일 간 서울, 경기도 수원, 용인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조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학생들이 유구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의 소중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첫 날은 창경궁, 덕수궁 등의 고궁을 방문하여 조선시대 고궁의 아름다움과 이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듣고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은 수원 화성과 행궁을 둘러보고,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정조대왕의 업적과 당시의 놀라운 건축기술을 아는 시간이었으며, 용인 민속촌에서는 모듬별로 민속촌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은 호암 미술관에서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다양한 유물을 견학하였으며, 이후 에버랜드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동물, 공연 등을 관람하였습니다.

이번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예전의 단순 관광식의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여유 있게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학습과 재미 둘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고 인솔교사 강도홍(교무부장) 선생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에 초점을 두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체험학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숨결이 느껴지는 나만의 손목시계 ~



우리학교 진로체험으로 내 안의 꿈 찾기 '가족공예 체험'이 5월 14일(토) 우리학교 영어전용교실에서 있었습니다.

김지원 외 19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가족공예를 배우고, 자신만의 가족시계를 만드는 등 가족공예사 직업체험을 하였습니다.

3학년 김지원 학생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시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가족공예사라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 하던 직업의 세계를 어렵잖이나마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016학년도 '꿈트리 진로캠프'

2016학년도 '꿈트리 진로캠프'가 6월 2일(목)~3일(금)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전교생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로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활동은 '꿈 이름표 만들기'를 시작으로 'You & I', '홀랜드 직업검사', '오만가지 직업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신나는 레크리에이션까지 하여 모두가 하나 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진로캠프에 참여한 1학년 조정배 학생은 " 식사가 맛있었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나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하여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인솔하여 갔던 정혁(인성·인권부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학생들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써 이러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



때론 신나게 ~



아름다운 머리띠를 만들어 보아요 ^^

우리학교 진로체험 내 안의 꿈 찾기 '가족공예'에 이어 '비즈공예 체험'이 5월 28일(토) 우리 학교 영어전용교실에서 있었습니다.

김명규 외 14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비즈공예를 배우고, 활용하여 자신만의 머리띠를 만들어 보는 등 비즈공예 직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을 담당하는 박유리 선생님은 이러한 진로직업체험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능력을 배양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지진이나 공습에는 이렇게.....



5월 16일(월)부터 18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었습니다. 공습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으로 진행된 대피훈련과 재난안전 관련 문화 행사로 정부 재난안전정보 포털 APP '안전디딤돌'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등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으로 우리학생들의 각종 재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학교현장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성·인권부장 정혁 선생님은 전망하였습니다.

프리허그 행사



2016학년도 행복한 등교맞이 프리허그 행사가 5월 4일 수요일 아침 등교시간에 있었습니다. 이번 프리허그 행사는 포옹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사입니다.

학생회장 윤지후 학생은 "포옹하여 선후배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교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김두용) 이하 전교직원과 학생회장(윤지후) 이하 학생회임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피켓을 이용해 홍보하였고, 아침식사 대용으로 김밥과 두유 등의 음료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소감을 작성한 학생 중 다섯 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였습니다.

동아리활동

우리학교 동아리 가온누리 활동 ~!!

주말 애니메이션

우리학교 동아리 가온누리(회장 박준우) 학생들이 3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우리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애니메이션 교육을 받고 직접 제작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담겨 있는 지역의 인물과 설화, 전설 등을 그림 작업을 통하여 영상과 함께 자료화, 작품화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보존 가치를 여러 각도로 활성화하고자 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번 활동은 가온누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멋진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고장 답사

가온누리에서는 우리 고장 부안의 역사문화를 더욱 잘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내고장 답사'를 3월 26일(토), 5월 28일(토)에 걸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안군 문화재 전문위원(김운진, 김대환, 김혜진)들이 동행하여 해설 및 강의를 해주었고, 가온누리 학생들은 모듬별로 주제와 스토리를 정해 관련 장소를 탐방하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동아리의 정현진(1학년) 학생은 "아름다운 우리 고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 우리 고장이 더욱 자랑스러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부안 지역의 다양한 실화를 알게 되었고, 역사와 문화, 문학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아리 지도교사 정성룡 선생님은 말하였습니다.



너나들이 활동

우리학교 포레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너나들이 활동'이 2학년 김규빈 외 21명의 학생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1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올 한 해 1년 동안 다양한 부분에서 꾸준히 진행되는 활동으로서 자율적 포레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그들의 특기를 개발하며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멘토와 멘티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멘토 학생은 자신의 특기를 다른 친구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가르치는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을, 멘티 학생은 멘토 학생의 도움을 받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각기 기대됩니다.



다꿈키움학교

■ 오늘은 내가 요리사 ~ 파파OO 아님!!



5월 19일 다꿈 교육주간을 맞아하여 가정과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실습이 있었습니다. 3학년 1반 학생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불고기를 이용하여 불고기피자, 불고기덮밥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과 퓨전음식을 만들어 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같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함께하는 사회로 ~



2016학년도 다꿈 키움학교 제과·제빵 교육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4회 있었습니다.

이번 다꿈 키움학교는 변산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행사로써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제과·제빵 기술을 습득하여 자기발전을 유도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혜림 선생님은, "우리 지역 사회의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결과물을 통해서는 성취감을 얻으며, 자존감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 교육은 이번 4회에 걸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림학교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 합니다.

■ 아버지 나라 문화체험현장학습



다꿈키움학교 '아버지 나라 문화체험현장학습'이 7월 1일(금)~2일(토) 1박 2일간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포함한 우리학교 24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온누리 군산일원에서 있었습니다.

'군산 옥구항교'에서 전통예절과 다도를 배우고, 동국사, 근대역사박물관 등에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학교는 다꿈키움학교로 지정되었는데 다꿈키움학교는 다문화중점학교로서 이중언어교육과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우리 지역에서 다문화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회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5월 2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 반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1학년은 김수연 선생님(전주 삼천초등학교 교장), 2학년은 김난희 선생님(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학년은 진경민 선생님(전북 인권교육센터 사무국장)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와 그 이해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두드림 학교 사업

우리학교는 2016학년도 두드림학교로 선정되어 약 6백만 원의 예산으로 학습장에, 정서행동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기초학력, 학습의욕 면에서 일반학생들보다 현저히 낮고,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며, 학부모들도 가정 형편과 생활 등에서 이를 개선해 나갈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연구부장 나향탁 선생님을 주축으로 학력향상부, 심리상담부, 복지지원부 등의 부서를 두고 학부모단체, 지역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대상 학생은 다섯 명이 선정되었고, 심리상담검사 및 치료, 기초학력지도,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 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 사업은 1회성에 그치는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아니라 선정된 학생 중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학력 책임제를 통해 기본학력향상과 사교육비 부담감소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해결 및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학교 구성원간 협업 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다중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학생의 자존감 회복 및 자신감 찾기,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학교교육의 질 제고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림학교(적은 학교 협력형) 사업

학부모 제과·제빵 교육



2016학년도 어울림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과·제빵 교육이 5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7회에 걸쳐 3개 학교(변산서중학교,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 학부모들 중 희망자 2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인영 선생님의 지도에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세지빵, 피자빵 등을 제빵하고, 자녀들의 간식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정 및 다문화센터 등의 간식으로도 제공하였으며, 3개 학교 학생들의 간식으로도 제공되어 폭발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먹을 빵은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였던 김경례(1학년 정민준 조모)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간식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면에서 일단 좋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이었다.”라고 하여 호평을 표현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어울림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학부모 교육이 예정되어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 사업소개

아울림학교(적은학교 협력형)는 농어촌 지역의 적은 학교 간에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변산 관내 3개 학교(변산서중학교,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가 모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전문 제빵강사(최인영)를 초빙하여 제과·제빵 교육을 7회(5월~7월), 구절판, 전통 떡갈비, 건강 비빔밥 등의 전통음식문화체험교실을 4회 실시하였고, 2학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독서하는 ‘書齋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테마식현장 체험학습활동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연계학교-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1. 밝은 아이(Eye) 프로그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안경 제작 및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력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에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섯 명이 1인당 6만원씩을 지원받으며, 현재까지 두 명의 학생이 지원받았습니다.

2. 우리는 1촌 - 사제동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담임교사와 포레 친구와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지아준중감, 나아가서는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28일(토) 정성룡 선생님(2학년 담임교사)과 황승현, 최대웅, 김어진 등의 세 명의 학생들은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하고 민주의 종가 등의 명소를 들르는 등 사제가 동행하여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최대웅(2학년) 학생은 “평소 거리감이 그래도 약간 있다고 느껴왔던 선생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추억을 공유하게 되어 더 가까워진 거 같고, 이런 추억을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할 수 있어 다음번에도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사제동행 프로그램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도교사 정성룡 선생님은 말하였습니다.

3. 소원나무 프로그램



평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중에 자신의 꿈, 진로, 소원 등을 적은 글을 소원나무(금식실 옆 소나무)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진정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여 도서 및 학용품, 소원하는 상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 1회 2~3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원을 적는 과정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변추협 감사 제공



5월 2일 변산면 발전 추진협의회(약칭 변추협)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아간 지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열심히 학습에 힘쓰고 있음을 알고 컴라면 등의 간식을 10박스 제공해 주셨습니다.

변추협은 우리 지역 변산면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써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발레 엘리트'의 발레처럼

● 1학년 2반 조이람

저번 국어시간에 교과서에 실린 '발레 엘리트'라는 영화를 국어선생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영화는 발레리노에 관한 영화였다. 예전에 가족끼리 광주로 발레를 보러 갔었는데 정말 발레리나, 발레리노 분들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감동받고,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발레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번에 영화를 볼 때도 발레에 관련된 영화여서 "어떤 내용일까?"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특히 주인공이 발레리나가 아닌 발레리노여서 더 궁금했다.

이 영화는 발리라는 춤을 좋아하는 아이가 권투를 배우다가 우연히 발레를 보고 끌렸고, 아버지 몰래 발레를 배우게 되는 내용이다. 발리라는 발레를 배우며 더욱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발레를 연습하다 아버지에 반쯤에 포기하고, 갈등이 생기자 결국 발레 선생님께서 몰래 개인수업을 받으면서 배우게 된다.

이후 발레 선생님은 발리에게 발레 학교인 '로열 발레학교' 입학시험을 보라고 제안을 하고, 발레 선생님이 발리의 아버지를 열심히 설득한다. 마침내 파업 중이던 아버지는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에 나가 발리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는 등 입학금을 모으고, 결국 아버지와 함께 '로열 발레학교'라는 굉장히 큰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다.

많은 남자애들도 학교에 입학하려고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동네에

서 발레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던 발리는 놀라고 긴장하여 자신이 떨어질 줄 알고, 시험보러 온 아이를 때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되다 집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발리는 하루하루 끝에 발리는 입학시험에 통과했다는 편지를 받고, '로열 발레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발레를 배우게 되고, 시간이 흘러 수석 발레리노가 된다.

이 영화에서 발리는 자신이 춤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연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점이 정말 부러웠다. 나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나에 비해 발리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고, 잘하는 것을 찾았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발리의 발레를 반대했던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갔다. 발리가 다른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하자, 아내가 부재하여 바쁜길로 이끌어줄 어른이 자신밖에 없다는 책임감에 평범한 포레이어들 과 같이 키우려고 하여 갈등이 일어난 부분에서 이해가 안듯 됐다. 또한 발리에게 발레를 배우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지만 파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발레를 배우게 해 주려고 하는 점에서 큰 감동이였다. 발리의 아버지가 그만큼 발리에게 신경을 기울이고, 노력해서 발리도 잘 자라게 된 것 같다.

주변아이들과 다르게 자라면서 발레를 배운 발리도 참 대단한 것 같다. 나 같으면 주변 아이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게 되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발레는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 환경인데다 여자애들 사이에서 혼자 남자인테도 열심히 연습하는 점이 보기 좋고, 본받을 점인 것 같다.

자신이 좋아하고, 끌리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 보아 후회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들었다.



종이저랑 (과학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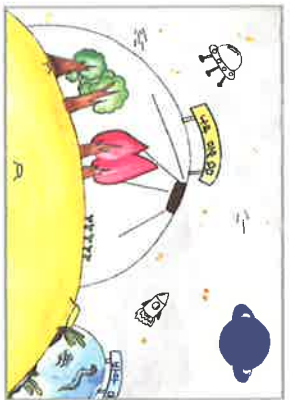
최우수상 : 손지영



우수상 : 김명규



장려상 : 김수현



장려상 : 박유빈

방학 중 안전지도

● 폭염 시 안전수칙

■ 폭염주의보(연중 일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발령 시

-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는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맛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둔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한다.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듣는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 폭염경보(연중 일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발령 시

-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
-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한다.
-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간다.
- 더워지고 기온을 낮추는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 어린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한다.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 물에 들어갈 때는 삼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합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 급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여름방학 학교 일정

☆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

- 7월 21일(목) : 방학
- 7월 25일(월) : 교과보충학습 시작(~8월 5일)
- 7월 29일(금) : 2-2 등교
- 8월 03일(수) : 2-1 등교
- 8월 06일(토) : 학생회간부수련회
- 8월 08일(월) : 3-1 등교
- 8월 10일(수) : 독서캠프(~11일)
- 8월 11일(목) : 1-1 등교
- 8월 16일(화) : 가온누리 남도탐방(~17일)
- 8월 17일(수) : 1-2 등교
- 8월 18일(목) : 학부모캠프
- 8월 19일(금) : 개학

